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가불안과 대응방안

- 국내 소비자물가가 1월 전년동기대비 4.1% 상승한 데 이어 2월에도 4.5%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음.
 - 구제역 확산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상승하여 가공식품 및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며, 원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요금도 상승함.
-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여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.
 -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었으며, 과잉 유동성은 원자재에 대한 투기성 자금으로 흡수될 수 있음.
 -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주요 곡물 가격을 상승시켰고, 신흥국가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원자재 사용 증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으며, 최근 중동 사태의 악화는 원유 가격을 급등시킴.
 - 지난 달 국내에 수입되는 10대 주요 원자재 가운데 5개 품목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, 수입원자재 물가가 생산과정을 통해 시중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전망됨.
- 이에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비상물가 대응체제 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.
 - 겨울배추 수매물량 2천톤 및 수입물량 2천 3백톤을 3~4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돼지고기, 분유의 무관세 물량도 최대한 빨리 도입할 계획임.
 -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사실상 100%인 현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범부처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.
 - 공산품은 관세인하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, 석유제품의 경쟁촉진과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,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는 계속 이어갈 계획임.

(2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, 기재부 등, 3/2)